# 강진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진행…바쁜 영농철에 보탬

## 여성농업인의 중식 부담 경감·농업 생산성 향상

## 올해 총 80개소 선정…상반기 75개 마을 사업 진행

강진원 군수가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한창인 신전면 노해마을을 방문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급식 준비 부담을 줄이고, 여성 농업인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식시설이 부족하거나 인력 수급에 지장이 있는 마을은 음식업 등록업체 또는 마을 반찬사업장 등을 선정해 반찬과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총 80개소이며, 마을별 여건에 맞게 상·하반기에 나눠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75개의 마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급식 일수 확대, 부식비 추가 지원으로 마을당 78만 4,000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당초 각 마을당 배정된 사업비 242만 원에 군비를 추가해 총 320만 원이 투입된다.

노해마을 한명근 이장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다 보니 마을공동체 회복과 소통의 장까지 마련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앞으로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농촌의 고령화·여성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원 군수가 신전면 노해마을을 방문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 완도군,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박차

## 시장 상권 활성화, 집수리·쉼터 조성 등 주거·생활환경 개선 추진

완도군은 완도읍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용암리와 서성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구 문화원은 '도시재생 인정 사업'을 통해 40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하여 완도군 청소년상담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총 134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완도읍 중앙마을(중앙·주도·서성·용암리)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중심 상권 활성화, 주민을 위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사업(집수리 23개소, 빈집 철거 3개소)을 완료하였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과 주차장에는 태양광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용암리와 서성리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심골목을 만들 계획이다.

중앙시장은 A동을 매입하여 철거하였으며, 통합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창업 활동을 원하는 관내 청장년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상인과 방문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시장의 주요 상품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로컬푸드 음식점(야외 포차) 조성으로 전통시장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철거된 청해시장 대신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고 낙후된 가로경관 정비, 볼거리 제공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내리에 있는 구 대중의원 부지에는 각종 수목 식재, 의자와 정자 설치, 돌길과 흙길 등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힐링 쉼터'를 조성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20만원 지원

## 만 80세까지 확대 지원…영화관·미용원·식당 등 사용 가능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이상 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 장흥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JOB것들' 플로깅 활동

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 소속 청소년 동아리연합회의 진로탐색 동아리 'JOB것들'에서 바다의 날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6월 2일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 활동에는 진로탐색 동아리 'JOB것들'소속 학생 20명이 참여하여 장흥읍 일대 및 탐진강변의 쓰레기를 청소하였다.

참여자들은 '더웠지만 쓰레기를 모은 후 가득 찬 쓰레기 봉지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환경파괴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하고 싶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 해남군, 올해부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

## 해남군 교육재단 출범 첫 사업…7월 사무실 개소 예정

해남군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이후 첫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입학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해남군 교육재단(061-530-5931)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입학생의 친권자 또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타지역(관외)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와 타지역에서 입학한 후 관내 학교로 전학 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해남군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총 314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이란 비전으로 지난 2월 설립 등기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한 해남군 교육재단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해남=기동취재본부